

Section 02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대한민국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 추이

교통, 통신의 발달, 결혼이나 취업, 유학 등과 같은 다양한 교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외국인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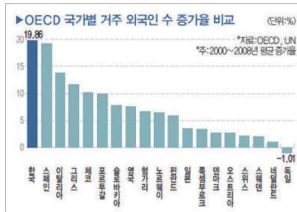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90만 명의 외국인이 살아간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57만 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약 13만 명(11.2%), 필리핀 약 4만 5천 명(4.0%), 인도네시아 약 4만명(3.5%), 타이 2만8천명(2.4%), 미국 약 2만 4천명(2.1%)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데, 외국인 근로자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에 특히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었다. 등록 외국인의 32.3%는 경기도에, 24.1%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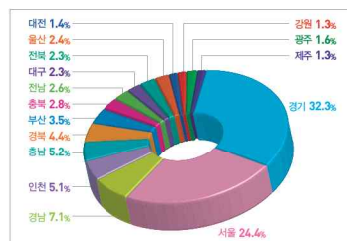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 수와 그 자녀의 수도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인적 교류, 학술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외국국적 동포와 유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30년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는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2011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문화 공존에 대한 찬성 비율은 36%로 유럽 18개국의 74%에 비해 매우 낮았고, 2012년 전국 국제결혼가족 실태조사에서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이 41.3%로 나타나 한국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특정 문화권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포용적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



작성 기준연도 : 2008년



등록외국인 거주 지역별 분포현황



정리하기

1. 저출산과 고령화

-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0,617천 명
- 저출산 : 2015년 출산율 1.24명
- 고령화 :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3.1%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2.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 2015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인 190만 명 - 인구 100명당 3.75명이 외국인
- 거주자의 국적 : 중국, 베트남, 필리핀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변화
-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



문제풀기

1. 다음의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영양·위생 환경의 개선 등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 다음 중 한국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 ① 중국 ② 미국 ③ 일본 ④ 필리핀